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추진

도, 내년 4억원 반영 계획 공모 통해 6개 마을 선정 문화예술단체 1:1매칭으로 마을별 이야기 구축 추진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문화 예술분야 공약인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 사업 추진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공약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생애사, 마을의 역사성·장소성 등 리서치를 통한 마을별 이야기(스토리)를 정립하고, 마을 고유의 신화, 전설, 문화 등 무형유산에 예술적 콘텐츠로 발전시켜 독자적 예술 콘텐츠를 확보해 향후 '마이크로 투 어리즘'으로 확산, 마을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차년도(2023년)엔 마을과 문화예술단체 간 1:1 매칭으로 마을별 이야기를 구축하고, 2차년도엔 1차년도에 발굴한 소재로

예술인과 주민이 협업해 공연, 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별 예술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리고 3차년도엔 발굴한 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마을별 교류 또는 최근에 떠오르는 '슬로우 투어리즘'(짧은 거리 도보여행 등 자연과 유적을 천천히 즐기는 여행)과 '마이크로 투어리즘'(가까운 지역을 미세하게 들여다보는 여행)의 마을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문

화예술 콘텐츠 발굴 지원을 위해 내년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내년 공모를 통해 6개 마을을 선정, 마을별로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신청이나 사업결과에 따라 2024년엔 대상 마을이 추가 확대될 수도 있다.

도는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본격 추진 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역할 정립 및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예술가들이 선보이는 가족음악극

예술공간 오이 창작극 '어린왕자를 찾아줘' 오는 24일 첫 무대 올려... "매년 공연 계획"

창작극 위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 극단 '예술공간 오이'가 이번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음악극을 만들었다. 예술공간 오이의 마흔다섯 번째 작품으로, 소설 '어린왕자'를 음악극으로 창작한 '어린왕자를 찾아줘'다.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에 들어갔다는 이 작품은 제작, 기획, 배우, 연출, 작곡 등 모든 과정을 제주 예술가들이 맡았다. 극단은 매년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설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

목된다. 1시간 10분의 러닝 타임에 풀어놓는 16곡은 연출 고승유와 음악감독 전여경이 작사·작곡했다.

극단은 음악적인 조인과 편곡, 하모니카 기타 연주 녹음에 제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리퍼가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어린왕자 역에 김지은, 비행사 역에 부지원, 여우 외 다수 역에 이휘연, 장미 외 다수 역에 채려나, 뱀 외 다수 역에 정은희가 출연하는 공연은 오는 24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25일에 이어 10월 1~3일과



지난 18일 열린 쇼케이스 모습.

예술공간 오이 제작

8~10일 각 오후 2~6시 예술공간 오이 소극장(연북로66 지하)에서 만날 수 있다.

연출을 맡은 고승유는 "제주에서 가족이 같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또한 뮤지컬이나 음악극은 더욱 부족하다"며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

었다"고 했다. 이어 "가족음악극 '어린왕자를 찾아줘'는 매년 공연 화해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 후에 제주를 대표하는 음악극이 되길 기원해본다"고 덧붙였다.

전체 관람가이며, 관람료는 성인 1만5000원, 미성년·예술인·장애인 1만원이다. 오은지기자

새로운 청년예술공간 '문화예술ZONE'

제주청년센터 내 7층 자리 연습·창작·표현실 등 갖춰 첫 전시로 청년활동작품 선보



지난 17일 문을 연 '문화예술ZONE'은 연습실, 창작실, 표현실,

제주 청년들의 예술공간이 조성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 제주청년센터(제주시 중앙로) 내 7층에 자리한 '문화예술ZONE'이다.

오픈라운지, 물품보관실 등으로 구성됐다. 예술커뮤니티팀이 창작 및 공연 연습과 청년예술활동가들이 모여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문화예술ZONE'에선 첫 전시가 진행중이다. 제주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예술 전공 대학생과 청년들이 함께 완성한 >평면미술 >사진 >미디어아트(영상) 등을 선보이고 있는 청년예술작품 전시회다.

전시장은선 자신만의 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인터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다락 이용 청년들의 목소리 등이 담긴 사진과 그림을 만날 수 있다.

또 제주해안에서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들을 수집해서 만든 작품, 전직 해녀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든 굿즈 등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팀들의 작품이 영상과 사진 등으로 전시됐다.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김훈관** <320>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땀이 흘렌, “경학민 돌이 혼 집서 살 무심은 엇인가마슴?”
 “땀 흘렌, “땀이 혼디 살 무심은 할 거 님은디양. 어땀 뿔 거 님수과?”
 “하르바지 골렌, “아니어게, 전이 두 집 어른덜이 두 아들 절혼헝게서디
 “헝어시네. 알메 웃이민 돌이 절혼 헝어갈 거여. 원 웃인집서 나신디도
 “하도 착헝게 살아가는 거 보난 무실 사름덜이 두 아들 오신도신
 “혼디 살게 흘 쟁이라.”
 “땀 흘렌, “그디 무실 사름덜이 도웨주민 두 아으덜은 살렘 출렘
 의지암지헝명 잘 살아가켄게양.”

*** 제주어 풀이**

*무음(무슴, 무심) : <어름> 마음.
 *혼 집서 살 무심 : 한 집에서 살 마음.
 *엇인가마슴? : 없는거예요? *알메 웃이민 : 얼마 없으면
 *헝어갈 거여 : 해 가겠지.
 *원 웃인집서 나신디도 : 없는 집에서 태어났어.
 *하도 : 많이. 열성있게. *보난 : 보니.
 *무실 사름덜이 : 마을 사람들이.
 *오신도신 : <어저>작은 소리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풀. 오순도순.
 *혼디 살게 : 같이 살도록. *도웨주는 거 님은게 : 도와주는 거 같애.
 *그디 : 거기. *도웨주민 : 도와주면.
 *살렘 출렘 : 살림을 차려서.
 *의지암지헝다(의지암지헝다) : <움직>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내다.
 *살아가켄게양 : 살아갈거 같네오.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장한철 표해록 청소년 백일장 27일 바리톤 김훈 독창회

예술문화회(회장 강상돈)가 제11회 장한철 선생 '표해록' 기념 전도 청소년 백일장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올해 백일장 공모 마감은 10월 31일까지다.

도내 초(4~6학년)·중·고등학생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주제는 제주바다, 해녀, 장한철, 표해록이다. 응모분야는 산문 또는 시 1편이고, 작품은 순수창작품이어야 한다.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메일(momo3773@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오은지기자

바리톤 김훈이 사랑노래로 가을밤을 수놓는다. 일곱 번째 열리는 이번 독창회는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제주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무대는 최태와 하이네 시에 곡을 붙인 음악의 거장 차이코프스키의 6개의 사랑노래로 채워진다. 현악4중주 은과르트의 특별출연으로 서정적인 한국가곡으로 그 깊이를 더하고, 소프라노 김은혜가 함께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반주는 은빛나가 맡는다. 전석 무료 공연이다. 오은지기자

입축단
 CONGRATULATIONS
하나원큐 프로 농구단

고서연
 (조부: 고석도 · 조모: 허순희)
 (부: 고정만 · 모: 현민희)

하나원큐 프로 농구단 입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탐라회
 회장 고태관 외 회원 일동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6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보'**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